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성령 강림 대축일

2021. 05. 23. (나해) 제2269호

대구주보



이 그림은
Bernard 21

노담위 주님의 집
사수성당 -

사수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도구되어

교구 총대리 | 장신희 요한보스코 주교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기에 2021년의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특히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는 성령을 향하여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만나이다.”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활시켜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고(오늘의 복음 요한 20,22-23 참조), 승천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외침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느낌이셨을까?’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십자가 이콘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성부께서 양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성부의 입과 예수님의 입 사이를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연결하여 십자가 수난의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이)와 똑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신자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세례’를 받는데, 물은 죄에서의 죽음을 상징하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과 성찬의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하시며 성령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하고 청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로마 8,15),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로마 8,26) 주시도록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대입니다. 우울감을 느끼시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웃 중에도 어떤 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족과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나누는 일들을, 마스크 착용처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도록 합시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주여, 저를 당신(성령)의 도구로 써주소서.”하고 기도하고,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화답송 후렴)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당신의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내어 드립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해!

교구 문화홍보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풍족하게 누리고 있어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과연 그런 날이 올까?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저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지금은 마트나 편의점 어디에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정수기는 이미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물이 줄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식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 삶 그리고 육상과 수생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 공급은 많은 곳에서 수요가 지속 가능한 공급을 초과하였으며,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8항)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 문제입니다. 앞으로 불과 4~5년 후에는 지구상에 3분의 2나 되는 나라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전망은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의 양을 적게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이 오염되면 그만큼 정화시키는데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생명의 물을 위한 실천 〉

- 양치할 땐 양치컵을 사용하고 샴푸, 비누, 세제는 필요한 양만큼만 쓰도록 합니다.
- 설거지할 땐 일반 세제 대신 쌀뜨물, 야채 데친 물, 국수 삶은 물 등을 사용합니다.
-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고 세제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빨랫감을 넣습니다.
- 음식은 먹을 만큼만 구매와 조리를 하고 배출 시에는 이물질과 물기를 최소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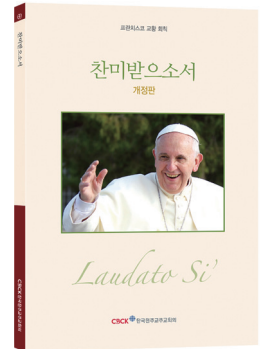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일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듯,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고마운 물도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지금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필문**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정판)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2020년 5월 24일~2021년 5월 24일)를 맞아,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는 2015년 9월에 초판(제1판)을 펴낸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롭게 다듬어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개정판(제2판)을 발행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5년 5월 24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시어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생태적 회개와 실천의 밑바탕이 되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예언적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회칙의 우리말 개정판은 배려와 형제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공동 여정에서,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도덕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지음 | 180면 | 6,000원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 신규 프로그램

□ **최양업홀 정오음악회** 방송시간 | 목 23:00 토 13:00 수 01:00 목 08:00

고품격 음악회를 안방 1열에서 만나보세요! 정오음악회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서울 중림동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 최양업홀에서 열리는 시리즈 음악회로 매년 봄 7회, 가을 7회 금요일 정오에 열리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의 해설로,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성악과 첼로, 목관 앙상블 등 청중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 생명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사랑이 기쁨 가정의 해 특별기획 '4인 4색 엄마의 뜰'** 방송시간 | 수 08:00 목 13:00 주일 20:00 화 03:00

‘엄마가 엄마에 대해 묻고 답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선포 기념 성가정 진작 특별기획 제1탄! 모든 가정의 기둥이자 우리 사회의 기둥인 엄마에 대해 말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흐뭇한 엄마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톨릭이 말하는 착한 엄마, 좋은 엄마,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빛과 소금이 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소개하고 그런 엄마가 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가톨릭평화방송TV 콘텐츠는 YouTube 과 facebook 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검색창 **가톨릭평화방송** 혹은 **cpbc** 를 입력하세요.

전라도 무장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최여겸(崔汝謙) 마티아는 일찍이 윤지충 바오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또 결혼한 뒤에는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를 만나 다시 교리를 배우고 아주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 당시 그의 처가는 충청도 한산에 있었는데, 그가 이존창을 만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이후 무장으로 돌아온 마티아는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파하는 데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마티아는 일단 한산 처가로 피신하였다. 이때 무장에서는 그가 입교시킨 신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으며, 그들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마티아는 4월 13일 한산에서 체포되어 일단 그곳에서 문초를 받고, 감사의 명에 따라 무장으로 이송되었다.

최여겸 마티아가 무장 관아에 이르자, 관장은 즉시 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문초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어떠한 형벌로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다시 전주 감영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도 마티아는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옥중에서 열심한 신자 한정흠 스타니슬라오와 김천애 안드레아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마티아와 동료들은 그 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형조에서는 1801년 8월 21일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마티아는 고향인 무장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곳 개갑장터(현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8월 27일(음력 7월 1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형조에서 최여겸 마티아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여겸은 처음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웠으며, 이후로는 이존창을 따르면서 교리를 독실히 믿고 익혔다. 또 그 교리로 남들을 속여 미혹시키고, 널리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도 망치고 남들도 망치게 하였으니 만 번 죽여도 아깝지 않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최여겸 마티아
(1763 ~ 1801년)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금은 백신 비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 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9. 말씀에 비추어 보기 8

믿음과 사랑, 은총과 약속, 인간 가정과 삼위일체 하느님을 포괄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는 가정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친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며 교육하는 활동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읽으며 성찬의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키워나가며 성령께서 머무시는 좀 더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정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정이 직면한 도전에 마리아처럼 용감하고 침착하게 맞서며 하느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루카 2,19,51 참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24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5월 25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5월 25일(화) 19:30 다사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5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5월 26일(수) 10:00 죽도성당
-	-		5월 26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107주년 기념 전시회

故 박형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기증유물 특별전

신부님의 선물展 (A gift from the Priest)

일시 : 2021. 5. 14(금) ~ 2022. 2. 28(월)

장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김조자 기획전시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DAEGU CATHOLIC UNIVERSITY MUSEUM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8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건강검진은 전인병원
5대암검진 일반검진
있어! 대장 내시경
I 대표전화 1688-7667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 구 정 신 병 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최봉도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5월 28일(금)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병기(베네딕도) 신부
2018년 5월 25일
- 김영호(멜키올) 신부
1978년 5월 27일
- 윤사물(F.하비에르) 신부
1915년 5월 27일
- 최봉도(F.하비에르) 신부
2020년 5월 28일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6.5(토) 18:00~6(일) 13: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일시: 6.11(금)~13(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영성관(대구시 사수동)

주제: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 마감: 6.3(목)

문의: 한국CLC, (02)333-9898(월~금)

행사 | 모임

바나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5.27(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교육 | 모집

성지안내 봉사를 위한 천주교회사

일시: 9.3~12.3 매주 금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회비: 6만원(교재비 별도)

문의: 성지안내봉사회, (010)4300-8767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 월, 목 14:00, 19:00

발성·성가교실: 화, 금 10:00, 14:00,

19:00 / 대구CEO합창단: 수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4번 출구)

문의: (010)3512-156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고전무용·장구, 문인화, 칼럼바,

제대꽃꽂이, 섬유공예,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피아노, 서양화, 연필초상화,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

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채용 | 안내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무학연수원 직원채용

업무: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시설 제반

자격: 1종 보통 운전, PC활용 가능한 자

우대: 청소년지도사, 교리교사 경력자

마감: 5.28(금) / 문의: 250-3069

http://www.jesusclub.or.kr/dcyf

한국SOS어린이마을 산하기관

직원 공개 채용

대상: 생활지도원(16명), 조리사(3명)

문의: 본부사무국, 984-6928

http://www.koreasos.or.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 (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약박사 | 최익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원장 박 동 근(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와 이상 가능, 1구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